

대림절 둘째 주

평화

Peace

대림절 둘째 주 묵상
목차

7일 (주일)	동방의 박사에게도 메시아 되심22
8일 (월)	베들레헴의 별24
9일 (화)	두 부류의 반대자26
10일 (수)	황금과 유향과 몰약28
11일 (목)	예수님이 오신 이유30
12일 (금)	그림자에서 실체로32
13일 (토)	궁극적인 실체34





12월 7일(주일)

동방의 박사에게도 메시아되심

사복음 중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한 것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목자들을 소개하지만, 마태복음은 목자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대신 마태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더욱 넓은 시각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시작과 끝에서, 예수님은 단지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닌 전 인류를 위한 메시아로 묘사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처음으로 경배한 이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당시 구약의 기준으로는 부정한 이방인으로 여겨지던 동방 박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초반에서부터 예수님이 특정 민족에만 제한된 분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위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나 있습니다.

이 주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예수님께서 부활 후 제자들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명령으로 다시 한번 강조됩니다. 이는 예수님이 열방이 메시아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음을 선언한 것이며 그분이 온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밝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마 28:18-19상)

구약의 예언 또한 이 사실을 미리 보여 줍니다. 나라들과 왕들이 메시아에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사 60:3)

마태는 바로 이 예언의 성취를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나라를 위한 왕되심과 약속을 이루시는 참된 메시아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12월 7일(주일)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1-2

★
12월 8일(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나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마태복음 2장 2절

★
12월 8일(월)

베들레헴의 별

성경에는 우리의 이해나 상식을 넘어선 신비로운 사건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 별이 어떻게 동방 박사들을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끌었는지 성경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후 베들레헴에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간단히 전할 뿐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마2:9-10)

별의 정체가 행성인지, 혜성인지, 초신성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별이 어떻게 움직였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고, 만나가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고, 요나가 어떻게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남았고, 달이 어떻게 붉게 변했는지 등에 관심을 집중하다 보면 복음의 핵심 진리들, 즉 하나님의 거룩하심, 죄의 무서움, 인간의 한계,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성령의 사역 같은 복음의 중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별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아니라, 그 별이 누구에게로 사람들을 인도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별은 스스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동방의 이방인들을 야기 예수께로 이끄시기 위해 사용하신 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까지 사용하여 열방이 메시야께 나아오게 하셨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모든 민족이 그분의 아들을 경배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요 4:23).

세상의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12월 9일(화)

두 부류의 반대자

예배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종종 불편한 존재처럼 느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의 생각과 삶에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요 주제는 아니지만, 복음서에는 예수님을 예배하길 원치 않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예수님에 대해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삶에 큰 의미나 영향을 주지 않는 분입니다.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헤롯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마 2:4)고 묻자, 그들은 정답을 알고 있었고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마 2:4-6)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메시아 탄생의 소문이 온 예루살렘에 퍼져 동요하는 중에도, 동방의 박사들처럼 아기 예수를 찾으려 하지 않았고, 예배하려는 열정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부류는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지위와 안전이 위협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헤롯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제거하려 했고,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 잔혹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자체가 그의 불안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이 두 부류는 반대 세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수님과 그분을 따르려는 사람들은 무관심과 적개심이라는 두 형태의 반대엔 언제나 직면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참된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무관심하거나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 되시는 것을 두려워하며 마음 한편에서 저항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12월 9일(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마태복음 2장 3-8절



12월 10일(수)

황금과 유향과 몰약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행 17:25). 그러므로 동방 박사들이 바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하나님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것도,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한 뇌물(신 10:17)도 아니었습니다.

부유하고 자족한 사람에게 드러지는 선물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지를 드러내고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리스도께 드리는 예물은 금식과도 비슷합니다. 금식이 어떤 것을 포기함으로써 그리스도가 그보다 더 가치 있음을 나타내듯, 예물도 마찬가지로 내가 포기하는 그 무엇보다도 그리스도가 더 귀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께 무언가를 바치는 것은 아래와 같은 고백의 방식입니다.

“저는 주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실 물질 때문에 주님께 나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제 기쁨은 주님께 있습니다. 저는 물질이 아니라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주님만을 더 온전히 기뻐하기를 소망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필요를 채우지는 못하지만 이 드림을 통해 제 마음이 어느 쪽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보물이십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린 것은 바로 이러한 예배의 고백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도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주 예수님, 주님은 메시아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주님의 빛 앞에 나아와 무릎 꿇고 경배할 것입니다. 주님은 이를 이루기 위해 세상을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반대에 직면하더라도, 저는 기꺼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 예물을 드리는 이유는 이 물건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이 제 마음을 만족케 하시는 분임을 고백하고자 합니다.”



12월 10일(수)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0-11절



12월 11일(목)

예수님이 오신 이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지상생활의 시작과 끝 즉 한 아기로 탄생하심(성육신)과 죽으심(십자가)이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자녀들”이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것으로(히 2:13, 사 8:18, 53:10).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을 내어주고 자기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딤후 4:10, 요 1:12).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리스도는 성육신 이전에도 존재하셨던 영이셨고, 영원한 말씀이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습니다(요 1:1; 골 2:9). 그러나 그분은 혈과 육을 취하셨습니다. 자신의 신성을 인성으로 옷 입히셨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분은 탄생은 죽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치셨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정죄할 근거를 갖지 못합니다(롬 8:33).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따라서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자유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사탄은 그 판결을 뒤집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적인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탄 선물은 얼마나 값진지요! 이 선물은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전달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12월 11일(목)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므로 한평생 매여 종 노릇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 주려 하심이니”

히브리서 2장 14-15절



12월 12일(금)

그림자에서 실체로

히브리서의 중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지 우리의 대제사장 이 되셨다는 사실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의식이 가리켜 온 참된 실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구약의 제도는 완성되었고, 우리의 시선은 그림자가 아닌 예수님 자신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제시된 까다로운 규례들 즉 ① 제사 제도(히 7:23-24), ② 유월절 희생(고전 5:7), ③ 성막과 성전(히 8:1-2, 요 2:19-21), ④ 할례의 규정(고전 7:19), ⑤ 음식에 관한 규정과 율법(막 7:18-19), ⑥ 절기(2:16-17) 등은 이 모든 것은 구원의 실체에 드리운 그림자일 뿐이었습니다. 이제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림자들은 사라집니다.

이를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이런 예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 아이가 쇼핑센터에서 엄마 손을 놓쳐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 봅시다. 겁에 질린 아이는 우왕좌왕하며 달려가다 모퉁이에서 울음을 터뜨릴 즈음 바닥에 드리워진 엄마의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그 그림자는 아이에게 큰 안도감과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림자보다 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엄마가 모퉁이를 돌아 직접 아이 앞에서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그림자가 아닌 실체, 모형이 아닌 본체, 예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골 2:17)

구약의 모든 제도와 의식은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을 가리키는 그림자였습니다. 우리는 그 그림자에 머무르지 말고,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아야 합니다(고후 4:6).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종교적)우상에게서 멀리하라”(요일 5:21)

그림자에 머물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살아계신 예수님께 온전히 고정해야 하겠습니다.



12월 12일(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히브리서 8장 1-2절



12월 13일(토)

궁극적인 실체

성탄절은 그림자가 실체로 대체된 날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의 설명이자 요약(요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평범하고, 연약하고, 죄가 있으며, 결국 스스로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불멸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며 죄가 없으신 분이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참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곳도 이 땅의 성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지은 장막이 아닌 “주께서 세우신” 참 장막, 곧 하늘에 있는 실체에서 섬기십니다. 이것은 모세가 시내 산에서 지시받아 만든 성막이라는 그림자가 아니라, 그 성막이 가리키던 본체입니다.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히 8:2)

또한 히브리서 8장 1절은 실체가 그림자보다 얼마나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위대한 사실을 말합니다.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께서 지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어떤 제사장도 보좌에 앉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시며 그 곁에서 영광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존중을 받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과 완전한 교제를 누리십니다.

이 모든 것은 휘장, 그릇, 진설병 상, 촛대, 제사장 의복, 양과 염소와 비둘기 같은 그림자의 세계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실체, 곧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성부와 성자의 완전한 사랑과 거룩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과 사랑과 의와 선하심과 진리를 드러내시는 참된 실체의 영역 속에서 일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실체입니다.



12월 13일(토)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8:1-2, 5

OKCC 2025 대림절 묵상 (둘째 주)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p>30 첫째 주일 소망 성찬식</p>  <p>● 요(Jn) 17:24 그의 영광, 그의 기쁨 <i>His Glory, His Joy</i></p>	<p>1</p>  <p>● 눅(Lk) 1:16-17 주의 길을 예비하라 <i>Prepare the Way</i></p>	<p>2</p> <p>● 눅(Lk) 1:46-55 마리아의 위대하신 하나님 <i>Mary's Magnificent God</i></p>	<p>3</p> <p>● 눅(Lk) 1:68-71 마침내 찾아오심 <i>The Long-Awaited Visitation</i></p>	<p>4</p> <p>● 눅(Lk) 2:1-5 지극히 작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 <i>For God's Little People</i></p>	<p>5</p>  <p>바후림금요기도회</p> <p>● 눅(Lk) 2:6-7 갈보리를 향하여 <i>No Detour from Calvary</i></p>	<p>6</p> <p>● 눅(Lk) 2:12-14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i>Peace to Those with Whom He's Pleased</i></p>
<p>7 둘째 주일 평화</p>  <p>● 마(Matt) 2:1-2 동방의 박사에게도 메시아되심 <i>Messiah for the Magi</i></p>	<p>8</p> <p>● 마(Matt) 2:2 베들레헴의 별 <i>Bethlehem's Supernatural Star</i></p>	<p>9</p> <p>● 마(Matt) 2:3-8 두 부류의 반대자 <i>Two Kinds of Opposition to Jesus</i></p>	<p>10</p>  <p>● 마(Matt) 2:9-11 황금과 유향과 몰약 <i>Gold, Frankincense, and Myrrh</i></p>	<p>11</p> <p>● 히(Heb) 2:14-15 예수님이 오신 이유 <i>Why Jesus Came</i></p>	<p>12</p> <p>● 히(Heb) 8:1-2 그림자에서 실체로 <i>Replacing the Shadows</i></p>	<p>13</p> <p>● 히(Heb) 8:1-2. 5 궁극적인 실체 <i>The Final Reality Is Here</i></p>
<p>14 셋째 주일 기쁨</p>  <p>● 히(Heb) 8:6 마음에 새겨주시는 새 언약 <i>Making It Real for His People</i></p>	<p>15</p> <p>● 요(Jn) 10:10 생명 and 풍성한 삶 <i>Life and Death at Christmas</i></p>	<p>16</p> <p>JOY</p> <p>● 빌(Phil) 2:9-11 낮아짐으로 높아지심 <i>God's Most Successful Setback</i></p>	<p>17</p> <p>● 램(Rem) 31:31-34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구원 <i>The Greatest Salvation Imaginable</i></p>	<p>18</p> <p>● 요(Jn) 17:18 성탄: 선교의 모델 <i>The Christmas Model for Missions</i></p>	<p>19</p>  <p>● 히(Heb) 2:14-15 성탄: 두려움에서의 해방 <i>Christmas Is for Freedom</i></p>	<p>20 Christmas Gift Drive 선물수집마감</p> <p>● 요일(1Jn) 3:8 성탄절 파업: 죄 생산라인 중단 <i>Christmas Solidarity</i></p>
<p>21 넷째 주일 사랑 유아세례식</p>  <p>● 요(Jn) 18:37 태초부터 계신 이의 탄생 <i>The Birth of the Ancient of Days</i></p>	<p>22</p> <p>WITH ♥</p> <p>● 요(Jn) 20:30-31 믿게 하려 함이요 <i>That You May Believe</i></p>	<p>23</p> <p>● 롬(Rom) 5:10-11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의 선물 <i>God's Indescribable Gift</i></p>	<p>24</p> <p>● 요일(1Jn) 3:7-8 나타나셨다! <i>The Son of God Appeared</i></p>	<p>25 성탄절 예배</p>  <p>● 요일(1Jn) 3:7-24 크리스마스 선물 <i>Christmas Presents</i></p>		



본 묵상 글은
John Piper의 "Good News of Great Joy"를 참고하여 엮었습니다.